유아의 정서표현규칙: 유아의 성, 정서표현의도 및 정서상황과의 관련성

Emotional Display Rules: Preschooler' Gender, Emotional Display Intentions and Positive/Negative Emotion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박사과정 장 윤 정
조 교 수 신 유 림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octoral student : Yunjung Jang
Assistant professor : Yoolim Shin

목 차

Ⅰ. 서 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emotional display rules and intentions of preschool children, any gender differences and the emotional intentions according to levels of understanding of emotional display rules and positive vs. negative situations. The subjects were 58 six-year-old preschoolers who were individually interviewed using 7 hypothetical scenarios that assessed emotional display rules and intentions. The children showed more self-protective intention than other intentions, although there were no gender differences in using emotional display intentions. Children with high scores of emotional display rules frequently tended to use prosocial and self-protective intentions and also used different emotional intentions on positive vs. negative emotional situations.

주제어(Key Words): 정서표현규칙(emotional display rule), 정서표현의도(emotional display intention), 정서발달(emotional development)

Ⅰ. 서 론

아동은 성장하면서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정서 상태를 표현하거나 표현해서는 안 되는 특정 상황을 인식하고 적절한 정서표현을 하게 되는 정서표현 규칙을 학습하게 된다 (Masters & Carlson, 1994). 이러한 정서표현 규칙에 대한 이해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적합한 정서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회성 발달에 선행되는 기본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정서를 이해하는 기초적인 인지능력은 영아기 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한다. 4-6개월 영아도 긍정적인 얼굴표정을 다른 정서 상태의 얼굴보다 오래 응시하는 초보적인 정서 인지

Corresponding Author: Yoolim Shin,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43-2 Yokkok 2-dong Wonmi-gu, Buchon City, Gyonggi-do 420-472, Korea Tel: 82-2-2164-4487 Fax: 82-2-2164-4485 E-mail: yoolim@catholic.ac.kr

능력을 갖고 있다(La Barbara, Izard, Vietze & Parisi, 1976). 또한 8-10개월 사이에는 정서표현을 해석하는 능력이 다소 분명해지며 사회적 참조가 시작된다(Feinman, 1992). 이러한 정서에 대한 이해와 함께 3-4세경이면 정서와 정서를 유발시키는 상황간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하며(Lewis, Stranger, Sullivan & Barone, 1989), 상황적 맥락에 맞게 정서표현 규칙에 따라 정서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이지선, 유안진, 1998; Ekman & Friesen, 1975; Gnepp & Hess, 1986; Saarni, 1984).

Jones, Abbey와 Cumberland(1998)는 정서표현 규칙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인지적 요소로 정서표현 규칙 이해와 정서표현 의도를 제시하였다. 정서표현 규칙의 이해는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아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정서표현 의도는 내적으로 느끼는 실제 정서와 다르게 정서를 표현하도록 동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서표현 의도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순간의 욕구 만족에 기초한 표현방식과 문화에 따른 표현방식이다. 전자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정서를 표현하였을 때 얻어질 결과에 대한 기대에서 출발하며 자기 방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후자는 특정한 하위문화로부터 그 전체 사회에 이르기까지 그 사회 구성원에 의해 공유된 사회적 규범에 기초하여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Ekman & Friesen, 1975; Saarni, 1984).

아동의 정서표현규칙의 발달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아동에게 마음이 들지 않은 선물을 받았을 때와 같은 가설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의 정서 표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3세 여아는 마음에 들지 않은 선물을 받았을 때 실망스러움을 감추고 미소를 지을 수 있으며(Cole, 1986), 연령이 증가하면서 실망스러운 선물을 받은 후 긍정적 정서반응을 더 잘 보이지만, 7-9세 아동 중 특히 남아들은 원치 않는 선물을 받았을 때 여전히 긴장된 행동을 하거나 실망감을 완전히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Underwood, Coie & Herbsman, 1992). 6-10세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의 표현방식을 연구한 Saarni (1984)에 의하면, 10세 아동들조차 원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을 때 자신의 실제 감정을 숨기기 위한 적절한 표현을 하지 못하였다. 즉, 아동은 발달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표현규칙에 대해 더 알게 되고 어떠한 특별한 사회적 상황에서 정서를 표현하고 억제해야 하는지 더 많이 배우게 되나, 이를 지지해주는 연구 결과는 비일관적이며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초기 발달적 결과를 제시해주는 경험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정서표현의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8, 10, 12세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표현의도를 질문했을 때, 대상 아동의 41%가 자신이 표현한 정서의 의도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또한 정서표현의도를 제시한 경우에는 사회적 규범유지와 부정적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Underwood *et al.*, 1992). 정서표현 의도를 친사회적 의도와 자기보호적 의도로 범주화한 Saarni(1981)에 의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아동은 타인과의 관계의 보호나 행동의 기준을 유지하기 보다는 자신의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는 표현규칙을 사용한다. 또한 9세 아동이 6세 아동에 비해 자기보호적인 정당화를 더 많이 나타낸다는 연구결과(한유진, 유안진, 1998)도 있다. 그러나 Gnepp과 Hess(1986)의 연구에서는 6, 8, 10, 15세 아동 모두 자기보호적 의도보다 친사회적 의도를 더 많이 나타냈다. Jones와 그의 동료들(1998)의 연구 역시 유치원생, 3, 5학년 아동 모두 친사회적인 정서표현규칙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한혜원(2003)의 연구에서는 4학년이 6학년보다 자기보호적 의도를 많이 사용하였고, 6학년이 4학년보다 규준유지적 의도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보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가 거의 없으며, 인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아동 역시 정서표현 의도의 사용에서 일관적인 연구결과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정서표현규칙의 성차에 관해 살펴보면, 여아의 경우 자신이 슬픔을 더 많이 표현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더욱 이해해주고 자신의 고통의 표현이 타인의 지지를 획득하는 방법이라고 인식하지만, 남아는 슬픔, 고통유발 상황에서 슬픔을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이지선, 유안진, 1999; Zeman & Garber, 1996). 또한 여아가 남아에 비해 상황에 더 적절한 정서표현을 하였으며, 부정적인 정서인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정서로 더 잘 표현하는데 즉 좋아하지 않는 선물을 받았을 때 여아는 남아보다 더 긍정적인 표정이나 언어적 행동을 보였다(Saarni, 1984). Jones와 그의 동료들(1998)의 연구에서도 유치원생과 3, 5학년 아동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여아가 남아에 비해 규준유지적인 의도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한혜원(2003)의 연구에서도 여아가 남아에 비해 규준유지적 의도를 많이 사용하였다. 한유진과 유안진(1998)의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친사회적 의도를 더 많이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성차에 대하여 Davis(1996)는 정서표현의도에서의 차이라기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억누르는 능력에 기인된다고 보았다. 반면에 앞에서 제시된 연구결과와 달리 정서표현규칙의 사용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힌 연구결과(Gnepp & Hess, 1986; Harris, Donnelly, Guz & Pitt-watson, 1986; Saarni, 1979) 역시 상당수 있어 성차에 관해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므로 정서표현규칙과 의도에서 성차

에 대한 더 많은 경험적 검증이 필요한 실정이다.

유아의 정서표현 규칙에 대한 이해는 사회인지적 능력을 반영하므로, 이러한 이해 능력이 발달된 유아는 타인의 감정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Eisenberg & Fabes, 1992). 또한 정서 지식의 수준이 높은 아동일수록 정서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게 되며, 친사회적 행동 경향을 보인다(Garner, Jones, & Miner, 1994; Oppenheim, Nir, Warren, & Emde, 1997).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해볼 때, 정서 지식의 수준과 정서표현의 의도의 관련성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유아는 특히 분노 및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올바르게 조절하고 표현하도록 학습하게 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맥락에 따라 유아가 사용하는 정서표현의 의도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서표현 의도를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들은 유아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개인차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둔 연구들(이지선, 유안진, 1999; 한유진, 유안진, 1998; 한혜원, 2003; Davis, 1995; Jones *et al.*, 1998)이 대부분이며, 정서가 유발되는 긍정적 및 부정적인 맥락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 있음을 고려한 연구는 부족하다.

모든 문화는 어떤 정서가 표현되거나 혹은 표현되지 말아야 하는 상황에 대한 정서표현규칙이 존재하며(Gross & Ballif, 1991; Harris, 1989), 비교문화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규칙에 문화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미국 부모들은 아기를 자극해서 기쁨의 최정점에 이르게 만드는 것을 즐기는 반면에, 케냐의 Gusii 엄마들은 결코 아기들과 얼굴을 맞대고 놀지 않으며, 대신에 아기가 가능한 고요하고 만족스럽게 지내도록 한다(LeVine, Dixon, Levine, Richman, Liederman, Keefer & Brazelton, 1994). 따라서 이러한 양육환경에서 자란 미국 아기는 긍정적 정서라면 강한 것이 좋다고 학습하는 반면, 구시 아기는 긍정과 부정적 정서 모두 억제하기를 배우게 된다. 또한 사회적 조화를 강조하고 개인의 규칙보다 사회적 규칙을 우선하는 일본과 같은 집단주의적 문화에서는 일본 아동들에게 일찍부터 타인과의 융화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그대로 드러내지 않아야 할 때가 있음을 학습하게 된다(Hendry, 1986). 동양문화에서는 화를 조절하고 통제하도록 교육받는 경향이 있고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보다 표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는데서 아동에게도 분노 표현을 자제하는 교육과 양육이 이루어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여아보다 남아의 정서표현을 통제하여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도록 사회화되어 왔다(한유진, 유안진, 1998).

이상의 연구에 기초해 볼 때 아동의 정서표현 규칙에 대한 연구는 유아가 살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외국에서 진행된 연구이므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국내 아동에게 일반화시키는데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서구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비교문화적 연구(Averill, 1990)에 의하면 특유의 문화권에 따라서 사람들은 특유의 정서 상태와 표현 그리고 조절 방식을 나타낼 수 있다. 더불어 국내에서 최근에 정서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대부분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며, 정서의 초기 발달적 특징을 알 수 있는 학령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지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서의 초기 발달적 특징을 규명하기 위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정서표현 규칙의 이해 및 정서표현 의도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유아의 정서표현과 관련하여 유아의 성에 따른 차이가 일관되게 보고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리고 정서표현 규칙의 이해 수준 및 정서가 유발되는 긍정 · 부정적인 상황에 따라 유아가 사용하는 정서표현 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상의 본 연구의 목적 하에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정서표현 규칙의 이해 정도는 어떠하며, 유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유아의 정서표현 의도의 경향은 어떠하며, 유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유아의 정서표현 규칙의 이해 정도에 따라 정서표현 의도의 사용에 차이가 이 있는가?

넷째, 긍정 · 부정적 정서 상황에 따라 정서표현 의도의 사용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광명시와 인천시에 위치한 중산층 거주지역의 어린이집 한곳의 1개 반과 유치원 한곳의 2개 반에서 연구대상을 표집 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은 총 58명으로 남아 31명과 여 27명으로 구성되었다. 대상 유아의 연령은 평균 6세 4개월이었으며, 연령 범위는 5년 7개월에서 6년 10개월이었다.

2. 연구도구

1) 정서표현 규칙

유아의 정서표현 규칙의 이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Jones와 그의 동료들(1998)의 연구에서 사용된 7개의 에피

〈표 1〉 정서표현규칙 에피소드

정서상황	에피소드	내 용
긍 정	2. 이 웃	옆집 아저씨가 입고 온 셔츠가 너무 우스워 보임
	6. 교 사	새로 오신 선생님의 발이 너무 커서 큰 신발을 신은 모습이 너무 웃김
부 정	1. 선 물	숙모가 준 생일 선물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음
	3. 꼴 등	달리기 시합에서 꼴등을 함
	4. 놀 림	엄마와 함께 유치원에 온 주인공을 친구들이 놀림
	5. 어린아이	엄마 친구가 놀러왔는데 같이 온 어린아이와 억지로 놀아주라고 함
	7. 부모여행	집에 주인공 혼자 남겨두고 부모님이 주말 동안 여행을 떠나려함

소드를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하게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7개의 에피소드 내용은 다음과 같다.

7개의 에피소드는 '이웃'과 '교사' 에피소드의 웃음을 유발하는 긍정적인 정서상황과 '선물', '꼴등', '놀림', '어린아이', '부모여행' 에피소드의 슬픔과 화남의 부정적 정서상황으로 구분된다. 또한 '꼴등'과 '놀림' 에피소드는 또래를 대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반면, '선물', '이웃', '교사', '부모여행' 에피소드는 성인을 대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며, '어린아이' 에피소드는 어린아이와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유아는 기쁨, 슬픔, 화남의 세 가지 정서를 유발하는 7개의 가상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각 주인공의 내적 감정(OO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느낄까?)과 외적으로 표현한 정서(OO는 겉으로는 어떻게 보여야 할까?)를 기쁨, 슬픔, 화남, 보통 얼굴의 표정 카드를 제시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왜 그러한 정서를 외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기록하였다. 7개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상 유아의 성별과 일치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김혜리(2000)의 연구에 기초하여 주인공이 자신의 기분을 상대방이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 기분과는 다른 얼굴표정을 지었다는 내용을 7개의 가상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야기에 첨가하였다. 유아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반응하도록 하였다.

질문 1: 영희(철수)는 마음속으로 어떤 기분이 들까?
(말로 하거나 얼굴표정 카드에서 지적하도록 한다)
질문 2: 그런데 영희(철수)는 마음 속 기분을 숨겼어요.
겉으로는 어떤 얼굴표정을 할까?
(말로 하거나 얼굴표정 카드에서 지적하도록 한다)
질문 3: 그래. 그럼 영희(철수)는 왜 그렇게 보이려고 했을까?

Jones와 그의 동료들(1998)의 연구에 제시된 채점을 기준으로 질문에 대한 유아의 반응은 실제정서를 숨기고 얼굴표정을 다르게 표현하며 의도를 설명한 경우 2점, 의도를 설명하지 못하고 실제정서를 숨기고 얼굴표정을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 1점, 실제정서와 얼굴표정이 일치하면 0점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한 유아가 받을 수 있는 총 점수의 범위는 0~14점이다.

2) 정서표현 의도

유아의 정서표현 의도는 앞에서 제시한 7개의 에피소드에 대하여 질문 3인 '왜 그렇게 보이려고 했을까?' 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범주화하였다. Jones와 그의 동료들(1998)의 연구를 기초로 친사회적 의도, 규준유지적 의도, 자기보호적 의도의 세 가지 주요 범주와 다른 의도 없이 정서를 직접 표현한 경우, 이상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기타 등 두 가지 범주를 포함한 총 5개의 범주를 사용하여 유아들의 반응을 분류하였다. 5가지 범주의 정서표현 의도에 대한 각각의 정의 및 반응 예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정서표현 의도의 범주 정의 및 반응 예

정서표현 의도	범주 정의 및 반응 예
1. 친사회적 의도	친사회적인 배려로 타인의 감정을 고려한다 예: 엄마가 슬퍼하실까봐 친구들이 속상할까봐 부모님이 즐거워하시니까
2. 규준유지적 의도	도덕적 규범이나 사회적 기대에 맞추려고 한다. 예: 어른이니까 예의를 지켜야 하므로
3. 자기보호적 의도	주변으로부터의 곤란함, 비웃음, 야단맞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 한다. 예: 친구들이 따돌릴까봐 그 친구가 괴롭힐까봐 혼날까봐
4. 직접 표현	다른 의도 없이 감정그대로 표현한다 예: '기쁘니까' '슬프니까' 등 정서를 그대로 기술함
5. 기 타	이상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경우 예: 그냥 멍하니 쳐다봐요.

3.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7개의 상황 이야기에 대한 유아의 정서표현 규칙의 이해 정도와 정서표현 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응답에 대하여 내용분석을 하였다. 유아의 정서표현 규칙과 의도의 전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범주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전체 빈도에 대한 하위범주별 상대적 빈도를 비율점수로 환산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유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정서표현규칙 이해 정도에 따른 정서표현 의도 사용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M=8.6)을 기준으로 정서표현규칙 점수가 상위 57%에 해당하는 유아를 상집단(n=33), 하위 43%에 해당하는 유아를 하집단(n=25)

으로 나누어 두집단 간 t검증을 실시하였고, 정서표현 의도의 긍정 · 부정적 정서 상황에 따른 정서표현 의도 사용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χ^2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유아의 정서표현 규칙의 이해

에피소드에 따라 유아가 정서표현 규칙을 이해한 정도 및 유아의 성에 따른 이해 정도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유아의 평균은 8.60(SD=4.38)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점수범위(0-14점)와 중앙치(7점)를 고려해보았을 때 중앙치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이해를 보였으며, 표준편차(SD=4.38)를 보면 유아간 개인차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에피소드에 따라 살펴본 결과, 유아는 '선물'(M=1.57, SD=.70) 에피소드에서 정서표현 규칙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어린아이'(M=1.47, SD=.80), '교사'(M=1.38, SD=.83), '이웃'(M=1.26, SD=.87) 에피소드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여행'(M=.79, SD=.83) 에피소드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없었다. 남아의 경우 '어린아이'(M=1.61, SD=.72) 에피소드에서 정서표현 규칙을 가장 잘 이해하였으며, 여아의 경우 '선물'(M=1.56, SD=.70) 에피소드에서 정서표현 규칙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와 여아 모두 '부모여행'(M=.94, SD=.89; M=.63, SD=.74) 에피소드에서 정서표현 규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에피소드에 따른 정서표현 규칙의 이해

에피소드	전체(N=58)	남(n=31)	여(n=27)	t
	M(SD)	M(SD)	M(SD)	
선 물	1.57(.70)	1.58(.72)	1.56(.70)	.13
이 웃	1.26(.87)	1.35(.84)	1.15(.91)	.90
꼴 등	1.07(.88)	1.13(.86)	1.00(.88)	.56
놀 림	1.12(.90)	1.13(.89)	1.00(.88)	.56
어린아이	1.47(.80)	1.61(.72)	1.30(.87)	1.52
교 사	1.38(.83)	1.42(.85)	1.33(.83)	.39
부모여행	.79(.83)	.94(.89)	.63(.74)	1.41
전 체	8.60(4.38)	9.16(4.35)	7.96(4.48)	1.04

2. 유아의 정서표현 의도의 경향

유아의 정서표현 의도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과 성차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유아는 정서표현 의도의 사용에서 직접 표현(M=.27, SD=.33)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기 보호적 의도(M=.26, SD=.25), 친사회적 의도(M=.19, SD=.20), 규준 유지적 의도(M=.07, SD=.12) 순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는 정서표현에 있어 의도를 사용하지 않고 감정 그대로 얼굴표정에 나타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정서표현에 있어 의도를 사용한 경우를 분석해보면, '친구들이 놀릴까봐', '엄마(아저씨,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등의 자기 보호적 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린아이가 울까봐', '엄마(숙모)가 속상해 하실까봐' 등의 친사회적 의도, 그리고 '선물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 되요' '공부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니까' 등의 규준 유지적 의도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정서표현의도의 경향과 성차

의 도	전체	남(n=31)	여(n=27)	t
	M(SD)	M(SD)	M(SD)	
친사회적	.19(.20)	.18(.19)	.19(.21)	.12
규준유지	.07(.12)	.09(.15)	.05(.08)	1.10
자기보호	.26(.25)	.29(.27)	.24(.22)	.77
직접표현	.27(.33)	.23(.30)	.32(.36)	1.12
기 타	.20(.23)	.21(.22)	.19(.25)	.29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없었다. 남아의 경우 정서표현에 있어 자기 보호적 의도(M=.29, SD=.27)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여아의 경우 정서표현에 있어 직접 표현(M=.32, SD=.36)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 여아 모두 정서표현에 있어 규준 유지적 의도(M=.09, SD=.15; M=.05, SD=.08)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아의 정서표현규칙의 이해 정도에 따른 정서표현 의도

유아의 정서표현규칙의 이해 정도에 따라 평균(M=8.6)을 기준으로 정서표현규칙 점수가 상위 57%에 해당하는 유아를 상집단(n=33), 하위 43%에 해당하는 유아를 하집단(n=25)으로 나누어 정서표현 의도의 각 범주별로 전체 빈도에 대한 비율점수를 비교해본 결과, 〈표 5〉와 같다. 상집단은 주로 자기 보호적 의도(M=.39, SD=.23)와 친사회적 의도(M=.28, SD=.20)를 사용한 반면, 하집단은 주로 직접 표현(M=.54, SD=.34)을 하였다. 유아의 정서표현규칙의 이해 정도에 따라 친사회적 의도와 자기 보호적 의도, 그리고 직접 표현에

〈표 5〉 정서표현규칙이해 정도에 따른 정서표현의도

의 도	상(n=33)	하(n=25)	t
	M(SD)	M(SD)	
친사회적	.28(.20)	.06(.11)	4.85**
규준유지	.09(.15)	.04(.08)	1.76
자기보호	.39(.23)	.10(.15)	5.58**
직접표현	.06(.10)	.54(.34)	7.77**
기 타	.17(.19)	.26(.28)	1.47

**p< .01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규준 유지적 의도와 기타 응답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긍정 · 부정적 정서 상황에서의 정서표현 의도

긍정 · 부정적 정서 상황에 따라 유아가 사용하는 정서표현 의도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유아는 긍정적 정서 상황에서 자기 보호적 의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부정적 정서 상황에서는 직접 표현과 친사회적 의도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 상황에 따라 정서표현 의도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χ^2=24.69, df=4, p<.000).

전체 에피소드 중에서 웃음을 자아내는 긍정적인 정서 상황에서 유아가 사용하는 정서표현의 의도를 에피소드별로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유아는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이웃'과 '교사' 에피소드에서 자기 보호적 의도(39.7%, 41.4%)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기타(29.3%, 19.0%), 직접 표현(15.5%, 19.0%), 친사회적 의도(10.3% 12.1%), 규준 유지적 의도(5.2%, 8.6%) 순으로 나타났다.

각 범주별 유아의 반응 내용을 분석해보면, 유아들의 실제 정서는 '웃음'이지만 자기보호적인 의도를 가지고 '아저씨(선생님)에게 혼날까봐' 웃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기타(24.1%) 범주의 반응을 보면, '그냥요' '그냥 멍하니 쳐다봐요' '선생님이 이상하게 보여서 화나요' 등이 있었다. 친사회적 의도의 응답으로는 '아저씨(선생님)가 속상해 하실까봐', '웃으면 선생님이 창피해하잖아요' 등이 있었고, '웃기지만 옆집아저씨라서 안 놀렸어요' '나이드신 분께 웃으면 안 된다고 엄마가 말해서' '공부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니까' 등의 규준유지적 의도를 사용하여 응답한 유아도 있었다.

전체 에피소드 중에서 슬픔과 화남 등 부정적인 정서 상황에서 유아가 사용하는 정서표현의 의도를 살펴보면, 〈표 8〉와 같다.

유아는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선물'과 '어린아이' 에피소드의 경우, 친사회적 의도(41.4%, 36.2%)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꼴등'과 '놀림'의 또래 에피소드 상황에서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직접 표현(37.9%)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기 보호적 의도(32.8%, 34.4%)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여행' 에피소드의 경우, 유아가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슬픔을 직접 표현(48.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응답 중 기타로 분류된 응답을 분석해보면, '선물' 에피소드에서 '선물을 바꾸면 되요'라는 응답이 있었으며, '꼴등' 에피소드에서는 '꼴찌해도 되요, 앞으로 기회가 많으니까요' '질 때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음에 이길 수도 있으니까요', '졌지만 그래도 달리기가 좋아서 좋아요' 등의 응답도 있었다.

〈표 6〉 긍정 · 부정적 정서 상황에 따른 정서표현 의도

빈도(%)

에피소드 \ 의도	친사회적	규준유지	자기보호	직접표현	기 타	합 계
긍 정	13(11.2)	8(6.9)	47(40.5)	20(17.2)	28(24.1)	116(100)
부 정	63(21.7)	22(7.6)	61(21.0)	92(31.7)	52(17.9)	290(100)
합	76(18.7)	30(7.4)	108(26.6)	112(27.6)	80(19.7)	406(100)

χ^2=24.69, df=4, ***p<.000

〈표 7〉 긍정적인 정서표현에서의 의도 사용

빈도(%)

에피소드 \ 의도	친사회적	규준유지	자기보호	직접표현	기 타	합 계
이 웃	6(10.3)	3(5.2)	23(39.7)	9(15.5)	17(29.3)	58(100)
교 사	7(12.1)	5(8.6)	24(41.4)	11(19.0)	11(19.0)	58(100)
합	13(11.2)	8(6.9)	47(40.5)	20(17.2)	28(24.1)	116(100)

〈표 8〉 부정적인 정서표현에서의 의도 사용

빈도(%)

에피소드 \ 의도	친사회적	규준유지	자기보호	직접표현	기 타	합 계
선 물	24(41.4)	12(20.7)	6(10.3)	10(17.2)	6(10.3)	58(100)
꼴 등	5(8.6)	1(1.7)	19(32.8)	22(37.9)	11(19.0)	58(100)
놀 림	4(6.9)	3(5.2)	20(34.4)	22(37.9)	9(15.5)	58(100)
어린아이	21(36.2)	3(5.2)	14(24.1)	10(17.2)	10(17.2)	58(100)
부모여행	9(15.5)	3(5.2)	2(3.4)	28(48.3)	16(27.6)	58(100)
합	63(21.7)	22(7.6)	61(21.0)	92(31.7)	52(17.9)	290(100)

특히 부모님이 주말동안 여행을 떠나 아동 혼자 집에 남겨진 경우, 심리적 불안과 공포를 유발되는 상황이므로 1차적 반응인 실제 정서를 직접적으로 노출시켰다. 많은 유아들이 화가 나거나 슬픔을 직접 표현(48.3%)한 반면, '용감한 척,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한다.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등의 친사회적 의도(15.5%)를 표현하거나, '어른이니까 그냥 여행 가셔야 되요' 등의 규준 유지적 의도(5.2%), '여행 못 가시고 기분이 안 좋으시면 혼날 수 있으니까' 등의 자기 보호적 의도(3.4%)를 사용하여 내적감정을 숨기고 웃거나 보통 얼굴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알아서 밥 차려 먹을 수 있어 괜찮다' '다시 돌아오니까 괜찮다' '꼭 참고 기다린다' 등의 기타(27.6%)의 응답도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정서의 초기 발달적 특징을 규명하기 위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정서표현 규칙의 이해 및 정서표현 의도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정서표현과 관련하여 유아의 성에 따른 차이와 의도 사용의 차이, 그리고 정서 상황에 따른 정서표현 의도 사용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정서표현 규칙의 전반적인 이해를 살펴보면, 유아는 어느 정도 실제정서를 숨기고 상황에 맞는 의도를 기초로 얼굴표정을 실제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었다. 특히 숙모의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유아는 화가 나거나 슬프지만 '선물이기 때문에' 혹은 '숙모가 슬퍼할까봐' 등의 이유로 겉으로는 웃거나 보통 얼굴을 할 수 있었다. 분노와 슬픔 같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실망상황에서 정서조절은 정서표현 규칙에 따라 선물을 받았을 때 행복이나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실망을 억제하고 실제정서를 가장 할 것이 요구된다(Davis, 1995; Shaffer, 2000). 이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거짓 표정을 지을 수 있어서 표면정서가 실제정서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5세 아동이 이해한다는 연구결과(김혜리, 2000)를 뒷받침 해주며, 실망상황에서 학령 전 유아가 부정적 정서표현의 조절이 가능하다는 선행연구(Cole, 1986; Saarni, 1984)의 결과를 지지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부모님이 주말동안 여행을 떠나는 상황은 유아에게 심리적 불안과 공포의 1차적 반응을 유발하는 실제 정서와 표면 정서를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진짜 감정을 위장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서표현 규칙의 전반적인 이해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상황에 더 적절한 정서표현을 하고(최정윤, 1994) 좋아하지 않는 선물을 받았을 때 여아가 남아보다 더 긍정적인 표정이나 언어적 행동을 보인 연구(Saarni, 1984)와 일치하지 않았다. 반면, 6, 8, 10세의 정서표현규칙의 이해 점수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며(최정윤, 1994), 유치원생과 3학년 아동의 정서표현규칙의 이해에서도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Jones *et al.*, 1998) 등 정서표현규칙의 이해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힌 일련의 연구결과(Gnepp & Hess, 1986; Harris *et al.*, 1986; Saarni, 1979)를 지지한다. 이는 연령과 성별이 정서표현규칙을 사용하는 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변인으로 자주 등장하지만 유아의 성보다는 연령과 같은 발달적 요인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아의 정서표현 의도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유아는 정서표현에 있어 직접적인 표현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및 청소년기와 다르게 유아기는 전형적으로 얼굴에 감정을 드러내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시기이므로(Shaffer, 2000) 이러한 발달적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아동의 41%가 정서 표현규칙 사용에 있어 구체적인 정당화 원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Underwood *et al.*, 1992)와 유사하다.

정서표현에 있어 의도를 사용한 경우, 자기 보호적 의도를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 이는 모든 연령의 아동이 관계의 보호나 행동의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보다는 자신의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는 의도를 사용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한유진, 유안진, 1998; Saarni, 198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아동의 연령이 어린 경우에는 자기보호적인 의도를 많이 나타내는 반면, 연령이 높은 경우에는 규준 유지적 의도를 많이 나타낸다는 결과(한혜원, 2003)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사회화의 결과로 아동이 자기보호적 동기보다 친사회적 동기를 더 많이 나타낸다는 Gnepp과 Hess(1986)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으며, 4, 6, 8세 아동의 정서표현 동기를 사회적 규준유지적 동기로 보고한 연구결과(최정윤, 1994) 및 만 5세 유아와 3, 5학년 아동 모두 친사회적 의도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Jones *et al.*, 1998)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정서표현의 의도 사용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규준유지적 의도를 더 많이 나타낸다는 연구결과(한혜원, 2003; Jones *et al.*, 1998) 및 여아가 남아에 비해 친사회적 의도를 더 많이 나타낸다는 연구결과(이지선, 유안진, 1999; 한유진, 유안진, 1998)와 일치하지 않았다. 반면, 자기보호적 의도가 성별에 관계없이 6세 아동보다 9세 아동이 더 많이 사용되며(한유진, 유안진, 1998), 친사회적 의도와 자기보호적 의도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며(한혜원, 2003; Jones *et al.*, 1998), 분노와 슬픔상황에서 사용하는 관계적 의도와 규칙지

향적 의도 사용에 있어서도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이지선, 유안진, 1999) 등 정서표현 의도의 사용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힌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데, 이는 자신의 성에 적합한 행동에 대한 사회화의 압력이 초등학교 시기에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본 연구 대상인 학령전 아동에게 있어서 성차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실제정서와 표현정서를 잘 구별하는 아동들은 자기 보호적 의도, 친사회적 의도를 사용한 반면에, 실제정서와 표현정서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아동은 내적 감정을 직접 표현하였고, 규준유지적 의도는 정서표현규칙 이해도에 관계없이 낮게 나타났다. 정서표현 규칙은 정서의 원인을 알고 자신과 타인간의 정서경험을 구별하여 상황에 적절한 지식을 수행하는데 관련된 사회인지 능력을 요구한다. 유아가 내적 감정과 일치하지 않는 정서를 표현하는데 있어 성인이나 또래의 비난을 피하고 자신을 지키려는 자기 보호적 의도를 사용하며, 타인의 감정을 고려한 타인과의 조화로운 사회적 관계 향상을 위하여 친사회적인 의도를 사용한다. 정서이해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아동이 교사의 사회능력평가에서도 높게 평가되고 또래와 좋은 관계를 맺는 이유로 이러한 친사회적 경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Garner *et al.*, 1994; Oppenheim *et al.*, 1997). 규준유지적 의도는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 권위에 기초하여 사회관습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도덕적 행동으로 보았을 때 Kohlberg (1976)의 도덕성 발달 단계의 3,4단계인 인습적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대상의 유아는 사회규범이나 기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전인습적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넷째, 긍정적 · 부정적인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에 따라 정서표현의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웃음을 자아내는 긍정적인 정서 상황에서는 자기 보호적 의도를 주로 사용하였다. 긍정적 에피소드인 옆집 아저씨의 우스꽝스러운 옷이나 교사의 큰 발처럼 웃음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속으로는 웃으면서 겉으로 웃지 않는 것은 웃음이 비웃음이 되어 상대에게 결례가 되는 것을 이해한다기보다 아저씨나 교사라는 성인의 권위로부터 야단맞음을 피해 자신을 지키려 자기 보호적 의도를 사용하여 겉으로는 무표정을 선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정적인 정서 상황에서 유아는 주로 직접 표현을 하였는데 특히 부모님께서 주말에 여행을 가셔서 집에 혼자 남겨지는 경우 감정 그대로 얼굴표정을 나타내었다. 이는 부모의 경우 정서수용을 잘 해주므로 어린 아동일수록 실제 정서를 가장하지 않고 성인에게 정서를 노출시키기(Saarni, 1988)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에피소드들과 달리 화남과 슬픔의 정서표현을 규제해야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이러한 에피소드의 성격에 의한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달리기에서 꼴등을 하거나 또래에게 놀림을 당하는 상황의 경우에도 유아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직접 표현을 많이 하였다. 또래에 대한 실제 정서를 숨기지 못하고 적절한 의도를 사용하지 못하여 직접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표현은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고 낮은 또래수용과 관련되며(Eisenberg & Fabes, 1992), 사회적 지위와 부적 관련이 있으며(Eisenberg, Fabes, Bernzweig, Karbon, Poulin, & Hanish, 1993), 또래 관계에서 화난 얼굴 표정을 짓거나 언어적으로 화를 잘 내는 거부아가 되기도 한다(Hubbard, 2001). 꼴등과 놀림의 또래 상황에서 유아가 정서표현 의도를 사용한 경우 자기 보호적 의도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발달단계에서 전조작기에 속한 유아가 아직 또래의 정서를 조망할 능력이 부족하여, 우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를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마음에 안 드는 숙모의 선물과 억지로 놀아주어야 하는 어린아이의 경우 친사회적 의도를 사용하였다. 실망 상황이지만 숙모의 마음을 배려하는 유아는 문화적으로 정서표현규칙을 적절히 관리하도록 잘 학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령전기의 유아임에도 불구하고 또래 상황과 달리 자신보다 어린 아이의 마음을 배려하는 친사회적인 의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부모와 아동간의 상호작용의 양과 질은 정서표현규칙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 여러 상황에서 타인의 정서를 바르게 판단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Dunn, Brown & Breaedsall, 1991)는 결과에 기초해 볼 때, 이러한 친사회적 의도의 습득은 가정에서 많은 비중을 두고 학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는 정서와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자신의 내적 감정을 숨기고 정서 표현을 조절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속한 문화의 사회적 관습을 기초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도록 사회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정서 표현을 장려하는 서양문화와는 달리, 동양문화에서는 화를 조절하고 통제하도록 교육하여 아동에게도 분노표현을 자제하는 교육과 양육이 이루어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정서표현을 통제하여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도록 사회화되어 왔다. 따라서 가정에서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라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는 학령 전 유아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이를 기초로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한정된 수의 유아들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후 연구로는 지역과 연령을 확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아

의 성별에 따른 차이만을 분석하였으므로, 추후연구에서 정서표현규칙의 초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을 비롯한 부모의 양육태도 등 생태학적인 변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외국 연구에서 사용된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유아의 응답을 구하여, 실제 상황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정서표현을 관찰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로 한국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연구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에피소드 7과 같이 상황의 특수성이 유아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에피소드를 구성할 때 내용에 대한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실제 상황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정서표현과 태도를 관찰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면접을 통하여 유아의 질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정서표현규칙과 정서표현의도를 구분하여, 정서 표현 규칙에 대한 이해정도를 파악하며, 또한 다양한 정서가 유발되는 상황을 제시하여 각 상황에서 유아가 사용하는 정서표현의도에 대한 구체적인 유아들의 반응을 분석한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김혜리(2000). 어린 아동의 실제 정서와 표면 정서의 이해: 아동의 마음 이론.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1-19.

이지선, 유안진(1999). 분노 및 슬픔 상황에서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와 정서조절 전략. 아동학회지, 20(3), 123-137.

최정윤(1994). 정서와 정서표현에 대한 아동의 이해.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유진, 유안진(1998). 부모의 정서규제와 아동의 정서표출 규칙 이해. 대한가정학회지, 36(11), 61-72.

한혜원(2003). 아동의 정서표현 의도와 친구간 갈등해결전략.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verill, J. R. (1990). Emotions in relation to systems of behavior. In Stein, N. L., Leventhal, B., & Trabasso, T. (Ed.), *Pshchological and Biological Approaches to Emo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Cole, P. M. (1986). Children's spontaneous control of facial ex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309-1321.

Davis, T. I. (1995). Gender differences in masking negative emotions: Ability or motiv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1*, 660-667.

Dunn, J., Brown, J., & Breaed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36-343.

Eisenberg, N., & Fabes, R. A. (1992). Emotion, 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M. S. Clark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Emotion and social behavior (Vol.14, pp. 119-150). Newbury Park, CA: Sage.

Eisenberg, N., Fabes, R. A., Bernzweig, J., Karbon, M., Poulin, R., & Hanish, L. (1993). The relation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preschooler's social skills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4*, 1418-1438.

Ekman, P., & Friesen, W. (1975). *Unmasking the fa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Feinman, S. (1992). *Social referencing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infancy*. NY: Plenum.

Garner, P. W., Jones, D. C., & Miner, J. L. (1994). Social competence among low-income preschooler: emotion socialization practices and social cognitive correlates. *Child Development, 65*, 622-637.

Gnepp, J., & Hess, D. L. (1986). Children's understanding of verbal and facial display rul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103-108.

Gross, A. L., & Ballif, B. (1991).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from facial expressions and situation: A review. *Developmental Review, 11*, 368-398.

Harris, P. L. (1989). Developmental changes in Children's understanding of simple, multiple, and blended emotion concepts. In C. Saarni & P. Harris (E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rris, P. L., Donnelly, K., Guz, G. R., & Pitt-watson, R. (1986).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distinction between real and apparent emotion. *Child Development, 57*, 895-909.

Hendry, J. (1986). *Becoming Japanese: The world of the preschool child*. Manchester, U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Hubbard, J. A. (2001). Emotion expression process in children's peer interaction: The role of peer rejection, aggression, and gender. *Child*

Development, 72, 317-334.

Jones, D. C., Abbey, B. B., & Cumberland, A. (1998). The development of display rule knowledge: Link ages with family expressiveness and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69,* 1209-1222.

Kohlberg, L. A. (1976). Moral stage and moralization: The cognitive development approach. In T. Likona (Ed.),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 Theory, research, and social issues.* NY: Holt, Rinehart & Winston.

La Barbara, J. D., Izard, C. E., Vietze, P., & Parisi, S. A. (1976). Four-and six-month-old infants' visual responses to joy, anger, and neutral expression. *Child Development, 47,* 535-538.

LeVine, R. A., Dixon, S., Levine, S., Richman, A., Liederman, P. H., Keefer C. H., & Brazelton, T. B. (1994). *Child care and culture: Lessons from Africa.*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wis, M., Stranger, C., Sullivan, M. W., & Barone, P. (1989). Deception in three year olds. *Developmental Psychology, 25,* 439-443.

Masters, J. C., & Carlson, C. R. (1994). Children's and adult's understanding of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emotional states. In C. Izard, J. Kagan, & R. Zajonc (Eds.), *Emotions, cognitions, and behavior* (pp. 438-46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Oppenheim, D., Nir, A., Warren, S., & Emde, R. N. (1997). Emotion regulation in mother-child narrative co-construction: Associations with children's narratives and adapt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3,* 284-294.

Saarni, C. (1979). Children's understanding to display rules for expressive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15,* 424-429.

Saarni, C. (1981). *Emotional experience and regulation of expressive behavior.*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Boston.

Saarni, C. (1984). An observational study of children's attempts to monitor their exp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5,* 1504-1513.

Saarni, C. (1988).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interpersonal consequences of dissemblance of nonverbal emotional-expressive behavior.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12,* 275-293.

Shaffer, D. R. (2000).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 Adolescence* (5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Underwood, M. K., Coie, J. D., & Herbsman, C. R. (1992). Display rules for anger and aggression in school-age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366-380.

Zeman, J., & Garber, J. (1996). Display rules for anger, sadness, and pain: It depends on who in watching. *Child Development, 67,* 957-973.

(2006년 1월 31일 접수, 2006년 3월 16일 채택)